

작품 내용

제 목	내 그림을 오천 원에 샀다
내 용	졸업전시가 끝난 날, 붉은 우산을 든 아이를 인터넷에 올렸다. 비보다 먼저 집으로 뛰어가던 아이였다. 석 달 뒤 지하상가에서 그 아이는 오천 원짜리 가방에 갇혀 있었다. 가게 주인은 인터넷에서 얻은 그림이라며 학생이면 천 원 깎아 주겠다고 했다. 나는 내가 그렸다는 말을 삼키고 값을 모두 치렀다. 처음 팔린 내 그림을 내가 처음 사는 날이었다. 집에 돌아와 가격표를 떼자 붉은 우산 한쪽이 접착제에 따라왔다. 뜯어진 자리로 흰 솜이 비어져 나왔다. 영수증에는 가게 이름, 안감에는 만든 공장의 이름, 그림 아래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다. 나는 찢어진 우산 곁에 내 이름 석 자를 적었다. 아이가 돌아올 곳을 잊지 않도록.